

인간안보와 트리플 넥서스(Triple Nexus)에 대한 영국학파적 시론*

조영철** · 이진영***

•요 약•

본 연구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트리플 넥서스(Triple Nexus)를 ‘영국학과(The English School)’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기존 연구가 인간안보를 규범적 대안이나 정책 프레임으로 주로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영국학파의 국제체제(international system),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 세계사회(world society)라는 삼중 구조를 활용하여 인간안보의 규범적 변화와 제도화 과정을 분석한다. 인간안보는 개인의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세계사회적 요구로 이해하며, 트리플 넥서스는 이러한 요구가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영역과 연계되는 제도적 조정 방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주권과 권력정치 등 국제체제의 현실적 조건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안보와 트리플 넥서스의 전개를 국제사회가 질서와 정의의 긴장을 조정하며 새로운 보호 규범을 수용하는 ‘관리된 규범 진화’로 개념화하고, 국제질서의 규범적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 국제규범, 영국학파, 보호책임, 인간안보, 트리플 넥서스

I. 서론

냉전 종식 이후 국제정치는 내전, 국가 붕괴, 난민 발생, 대규모 인권 침해, 만성적 빈곤과 저개발, 초국가적 범죄, 팬데믹, 기후위기 등 다양한 비전통안보(non-traditional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5C2A0 2022370).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제1저자

*** 전북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 교신저자

security) 위협에 직면해 왔다. 이들 위협은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넘어 개인과 공동체의 생존 및 복지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에서 기존 국가 중심 안보관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한 인간안보(human security)는 안보의 보호 대상을 국가에서 인간으로 전환하고, 개인의 생명, 존엄, 자유를 보호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였다. 이는 무정부(anarchy) 상태에서 국가의 생존과 권력 경쟁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안보관과 구별되며, 인간의 취약성과 일상적 안전에 주목하는 규범·포괄적 안보 접근을 지향한다. 나아가 인간안보는 개발, 인권, 인도적 지원,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이하 R2P), 평화 구축 등 기존에 별개의 정책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의제들을 안보 담론의 핵심 영역으로 통합함으로써 국제안보 개념의 범위와 의미를 확장하였다.¹⁾

그러나 인간안보는 국제정치이론의 주요 분석 틀 속에서 일관된 이론적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현실주의 관점의 연구들은 인간안보를 국가 중심 안보 개념에 대한 규범적 도전으로 이해하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자유주의적 접근은 이를 국제기구나 공여국이 활용하는 정책적 담론 또는 거버넌스 수단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²⁾ 그 결과 인간안보는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규범적 진보를 반영하는 이상적 가치로 평가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념적 모호성과 정책적 실천의 한계를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³⁾ 더욱이 기존 인간안보 연구는 정책 처방과 문제 해결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인간안보에 관한 존재론적·인식론적 기반과 국제질서 변화와의 이론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⁴⁾

1) Alkire, Sabina. 2003. "A Conceptual Framework for Human Security", Centre for Research on Inequality, Human Security and Ethnicity (CRISE), Working Paper 2; Maclean, Sandra J., David R. Black, and Timothy M. Shaw, eds. 2006. *A Decade of Human Security: Global Governance and New Multilateralisms*. Burlington: Ashgate; Holliday, Ian, and Brendan Howe. 2011. "Human Security: A Global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Provid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3, 73-91.

2) 박홍서. 2012. "자유주의 통치성의 출현과 인간안보: 인간안보에 대한 푸코주의적 접근", 『국제정치논총』, 제52집 제3호, 58-59; Wibben, Annick TR. 2008. "Human security: Toward an opening," *Security Dialogue*, Vol.39, no.4; Chandler, David. 2008. "Review essay: Human security: the dog that didn't bark," *Security Dialogue*, Vol.39, no.4; Newman, Edward. 2010. "Critical human security studi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36, no.1; Owen, Taylor. 2004(b). "Human security-conflict, critique and consensus: Colloquium remarks and a proposal for a threshold-based definition," *Security Dialogue*, Vol.35, no.3.

3) Paris, Roland. 2001. "Human Security: Paradigm Shift or Hot Air?," *International Security*, Vol.26, 87-102; Baroncelli, Eugenia. 2024. "Governing Complexity in Complex Times: The HDP Nexus and the role of the UN, the EU and the World Bank," *The International Spectator*, Vol.59, no.3, 21-41; Acharya, Amitav. 2011. "Human Security," in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eds. John Baylis, Steve Smith and Patricia Owe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478-493.

이와 같이 인간안보는 안보의 참조 대상을 국가에서 인간으로 확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적 의제로 부상하였지만, 그 개념적 범위와 적용 방식, 그리고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는 학계와 실천 영역에서 지속적인 논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인간안보 개념 자체의 내재적 결함이라기보다, 이를 국제질서와 국제제도, 그리고 권력 관계의 맥락 속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안보를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의 규범적 진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안보의 실천적 구현을 위한 접근으로 제시되는 트리플 넥서스가 국제사회 차원에서 어떠한 규범·제도적 의미를 갖는지를 핵심 연구 질문으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인간안보를 단순한 정책 담론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질서와 가치 변화를 반영하는 규범적 레짐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영국학파(English School)’ 이론을 분석 틀로 채택한다. 영국학파는 현실주의적 국제체제(international system), 자유주의와 친화성이 있는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 그리고 보다 코스모폴리탄 가치 공동체를 의미하는 세계사회(world society)를 하나의 이론적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인간안보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생명, 존엄 및 개발을 강조하는 세계사회적 인권 가치에 기반하지만, 실천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권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사회 내부에서 규범으로 통용되고 제도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간안보는 세계사회적 정의(justice)와 국제사회적 질서(order)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며, 국제사회의 규범적 진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⁴⁾

따라서 본 연구가 영국학파를 채택한 이유는 인간안보의 규범적 의미를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생존과 존엄이라는 가치가 국제사회에서 수용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기존 인간안보 연구가 국가 중심 안보에서 개인 중심 안보로의 전환과 그 규범적 의미에 주목해 왔다면, 본 연구는 인간안보를 세계사회적 가치가 규범과 제도 속으로 유입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리플 넥서스(triple nexus)는 인간안보와 분리된 정책 의제라기보다, 개인보호라는 규범적 요구를 인도적지원-개발

4) Newman, Edward. 2010. "Critical human security studi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36, no.1, 인간안보 개념과 관련된 실증주의 방법론적 제안은 다음 논문을 참조바람. King, Gary, and Christopher J. L. Murray. 2001~2002. "Rethinking Human Securit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116, 585-610.

5) 노예제 폐지는 국제사회의 규범적 변화가 나타난 역사적 사례 가운데 하나로 Quirk(2008)는 이를 반노예제에 관한 정치·법적 규범이 장기간에 걸쳐 발전한 과정으로 설명한다. Quirk, Joel Forbes. 2006. "The Anti-Slavery Project: Linking th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Human Rights Quarterly*, Vol. 28, no.3, 565-598.

-평화의 연계 속에서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인간안보가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규범적 질문을 제기한다면, 트리플 넥서스는 이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인가’라는 제도적 문제로 확장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계에 주목하여 인간안보와 트리플 넥서스를 개별적인 규범이나 정책 의제로 다루기보다, 규범적 요구가 제도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나 정책 성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대신 기존 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이론적 해석을 통해 인간안보와 트리플 넥서스의 관계를 재구성한다. 특히 두 개념의 전개를 새로운 규범이 기존 질서를 대체하는 과정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기존 질서와 새로운 보호 요구를 조정하는 규범적 변화로 해석한다. 이러한 접근은 인간안보와 트리플 넥서스의 연속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영국학과 국제사회론을 트리플 넥서스 논의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영국학과 시각을 적용하여 인간안보와 트리플 넥서스를 연결하는 다층적 분석 틀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인간안보가 세계사회 차원의 보편적 가치로 제기된 이후 국제사회 내부에서 어떠한 이론·규범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내재화되었는지, 그리고 트리플 넥서스가 이러한 규범의 실천적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인간안보를 국제질서의 규범적 변동과 진화의 산물로 재해석하며, 인간안보 연구와 국제정치이론, 특히 영국학파가 제시하는 국제체제·국제사회·세계사회 간의 이론적 연계를 확장하는 데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연구 배경을 포함한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영국학파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제3장 인간안보와 트리플 넥서스에 대한 영국학과 적용 분석틀을 도출한다. 제4장은 안보 인식에 대한 전환점을 제공한 인간안보를 영국학파의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트리플 넥서스가 인간안보 개념을 실현하는 하나의 실천 기제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살펴본다. 제5장 결론과 시사점에서는 연구 함의와 한계, 그리고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II. 영국학파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영국학파의 관점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중간적 위치를 차지한다. 현실주의는 국제정치를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이 생존과 권력을 위해 경쟁하

는 영역으로 이해한다. 자유주의는 국제기구와 국제규범, 상호의존 확대가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영국학파는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규범과 질서가 부재한 상태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국가들은 공통의 규범과 규칙, 제도를 형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질서를 갖는 국제사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학파는 또한 국제정치의 도덕적 진보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이를 필연적 과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낙관주의와도 차이를 보인다.

영국학파에 따르면 국제정치는 단순한 힘의 경쟁 체계도, 협력을 통해 자동적으로 진보하는 공간도 아니다. 국가들은 갈등과 권력 경쟁을 지속하는 동시에, 외교, 국제법, 주권과 같은 공통 규범과 제도를 통해 국제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질서와 정의, 협력과 갈등, 규범과 권력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은 국제정치의 변화를 기존 질서의 붕괴나 대체가 아니라, 국제사회 내부에서 새로운 규범과 가치가 점진적으로 수용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⁶⁾

대표적인 영국학파 학자인 헤들리 볼(Hedley Bull)에 따르면, 국가체제(또는 국제체제)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며, 각국의 행동이 다른 국가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형성될 때 성립한다. 반면, 국가사회(또는 국제사회)는 국가들의 집단이 공통의 이해관계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상호관계에서 자신들이 공통의 규칙에 의해 구속된다고 생각하고, 나아가 공통의 제도를 함께 유지, 운영할 때 성립한다.⁷⁾ 이러한 국제사회 관점은 국제정치를 단순한 무정부적 권력 경쟁의 장이 아니라, 국가들이 규범(norms), 규칙(rules), 제도(institutions)를 공유하고 재생산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이해한다.⁸⁾ 따라서 국제질서의 핵심 과제는 무정부 상태 자체를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어떠한 규범과 제도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도덕적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고 조정하는가에 있다.⁹⁾

6) 마상윤. 2008.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 『세계정치』, 10권, 35-61; 황영주. 2009. “실증주의와 후기실증주의의 중도(via media)?: 영국학파 다시보기”, 『국제정치연구』 제12권 2호, 23-46; Dunne, Tim. 2013. “The English School,”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Discipline and Diversity*, eds. Tim Dunne, Milja Kurki and Steve Smi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32-152; Bellamy, Alex J. 2007. “The English School,”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ed. Martin Griffiths, London: Routledge, 73-87.

7) Bull, Hedley. 1977/1995.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9-13.

8) Brown, Chris. 2001. “World society and the English School: an ‘international society’ perspective on world societ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7, no.4, 423-441; 이윤희. 2021. “주류국제정치이론이 지닌 ‘서구 중심성’에 대한 대안적 인식론 논의: 국제사회론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4권 2호, 225-260.

9) Sørensen, George et al. 2022.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nd Approaches*.

국제사회에서 인간안보의 규범적 확장과 변화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학과 내부에 존재하는 세 가지 지적 전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학파는 국제정치를 국제체제(international system),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 세계사회(world society)라는 세 가지 분석 수준에서 이해하며, 이를 통해 권력, 질서, 규범, 정의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체제 전통은 국제정치의 핵심 행위자인 국가들 간의 권력 관계와 전략적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이 전통은 국제정치를 갈등적 무정부 상태의 구조와 과정으로 이해하며, 국가의 생존과 안보,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권력 경쟁을 분석의 중심에 둔다. 이러한 관점은 홉스적(Hobbesian) 혹은 마키아벨리적(Machiavellian)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대 국제정치학의 신현실주의(neorealism)를 포함한 현실주의 계열 이론과 상당한 이론적 친연성을 가진다. 또한 웨스트팔리아 주권국가를 국제정치의 기본 단위로 상정하는 국가 중심적 존재론에 기반하며, 일반적으로 실증주의적 인식론과 구조주의적 방법론을 통해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한다.¹⁰⁾

둘째, 국제사회 전통은 국가들 간의 상호 이익과 공유된 정체성이 규범, 규칙, 제도를 통해 어떻게 제도화되는가에 주목한다. 이 전통은 국제정치의 핵심을 권력 경쟁 자체가 아니라 국가들이 공동의 규범과 제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찾으며, 흔히 그로티우스적(Grotian) 전통으로 불린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국가는 단순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행위자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는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주체인면서도 동시에 국제사회가 형성한 규범과 제도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점과 유사하다.

국제사회 전통에서 국제정치는 권력과 도덕, 질서와 정의가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영역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국제질서는 단순히 물질적 힘의 분포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 외교, 국제법, 세력균형과 같은 공유된 제도와 규범을 통해 재생산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 개념은 영국학과 이론의 핵심 분석 대상으로 자리해 왔다. 비록 국제체제 전통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주요 행위자로 상정하는 국가 중심적 존재론에 기반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규범과 정체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적 인식론과 역사적·사회학적 접근을 적극 활용한다.¹¹⁾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37-169.

10) Buzan, Barry. 2014. *An Introduction to the English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Societal Approach*. Cambridge: Polity. 12.

11) Buzan, Barry. 2014. *An Introduction to the English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Societal Approach*. Cambridge: Polity, 12-13; Buzan, Barry and George Lawson. 2018. The English School: History and primary institutions as empirical IR theory? in Thompson, V. (ed.) *The Oxford Encyclopedia of Empirical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셋째, 세계사회 전통은 국가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국제정치의 궁극적 도덕 공동체로 상정하며, 인권과 인간 존엄에 기반을 둔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 질서의 형성을 핵심 관심 대상으로 삼는다. 이 전통은 국가 중심 국제질서의 한계를 넘어 보편적 인간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칸트적(Kantian) 전통으로 불리며,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와 밀접한 이론적 연관성을 가진다. 현대 국제정치학에서는 보편적 자유주의 가치와 결합하여 이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넘어 국제질서의 도덕적 정당성과 인류 공동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보다 규범적인 성격을 지닌다.

세계사회 전통은 국제체제와 국제사회가 전제하는 국가 중심적 존재론을 상대화하며, 국가를 초월하는 개인, 시민사회, 국제기구, 초국가적 네트워크, 글로벌 규범과 같은 행위자 및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개인을 유일한 분석 단위로 상정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머무르지 않으며,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가 중층적으로 구성하는 글로벌 사회의 형성과 변화를 함께 분석한다. 따라서 세계사회 전통의 관심은 국제체제의 비국가적 측면을 단순히 포착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국제질서가 어떠한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권, 인간안보, 글로벌 정의와 같은 보편적 규범이 기존 국가 중심 질서를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지 탐구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사회 전통은 보다 정의롭고 포용적인 국제질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규범적·역사적 비전으로 이해될 수 있다.¹²⁾

이 세 가지 전통 가운데 어느 하나를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각각은 국제정치의 본질에 대한 상이한 존재론적·규범적 관점을 반영하며, 국제현실의 특정 측면을 조명하는 동시에 다른 측면을 상대적으로 간과한다는 점에서 모두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설명에 머문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상호보완성 때문에 세 전통은 국제정치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분석 틀을 구성한다. 국제정치는 이러한 전통들 간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영국학파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며, 마키아벨리주의나 칸트주의의 목소리보다는 그로티우스적 합리주의의 온건한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다고 말할 수 있다.¹³⁾ 즉 국제정치를 순수한 권력 경쟁의 장도, 보편적 도덕

USA), 783-799.

12) Buzan, Barry. 2014. *An Introduction to the English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Societal Approach*. Cambridge: Polity, 13; Brown, Chris. 2001. "World society and the English School: an 'international society' perspective on world societ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7, no.4, 423-441.

13) Sørensen, George et al. 2022.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nd Approach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44; Wight, Martin. 1991. *International Theory: The Three*

이 완전히 실현된 공동체도 아닌, 국가들이 공유된 규범과 제도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도덕적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국제사회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안보와 같은 새로운 규범이 국제사회 내부에서 정당성을 획득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특히 국제정치에서 인간안보의 규범적 정당화와 제도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론 내부의 핵심 논쟁인 다원주의(pluralism)와 연대주의(solidarism)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쟁은 국제사회가 질서와 정의, 주권과 인권, 비개입과 개입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직결된다.¹⁴⁾

다원주의는 국가주권과 비개입원칙을 국제사회의 핵심 규범으로 간주하며, 문화·정치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가 중심적 국제질서를 지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가 간 평화로운 공존과 질서 유지이며, 정의와 인권 증진 역시 이러한 질서가 확보된 이후에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다원주의는 일반적으로 현상 유지적 성격을 띠며, 국제사회가 국가 내부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¹⁵⁾

다원주의자들은 정의가 국제정치의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지만, 정의 실현 역시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불완전한 정의를 가진 질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질서가 붕괴된 상황에서는 어떠한 정의도 지속적으로 구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역할은 국가 간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규범과 제도를 유지하는 데 있으며, 각 국가는 자신들의 역사·문화적 맥락에 따라 ‘좋은 삶(good life)’의 의미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다원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판단을 주로 국가 권한에 맡기며, 국제사회를 국가들의 주권적 독립성과 상

Traditions, edited by Martin Wight and Brian Porter. Leicester: Leicester University Press; Linklater, Andrew, and Hidemi Suganami. 2006. *The English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Contemporary Reassess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uzan, Barry. 1993. "From international system to international society: Structural realism and regime theory meet the English School,"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7, no.3, 327-352; Little, Richard. 1998. "International system, international society and world society: a re-evaluation of the English School,"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dited by B. A. Roberson, London·New York: Continuum, 59-79; Watson, Adam. 1987. "Hedley Bull, States Systems and International Societi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13, no.2, 147-153.

14) Linklater, Andrew, and Hidemi Suganami. 2006. *The English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Contemporary Reassess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9-68; Wheeler, Nicholas J., and Timothy Dunne. 1996. "Hedley Bull's Pluralism of the Intellect and Solidarism of the Will," *International Affairs* Vol.72, 91-107.

15) Buzan, Barry. 2014. *An Introduction to the English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Societal Approach*. Cambridge: Polity. 89-112; Jackson, Robert. 2000. *The Global Covenant: Human Conduct in a World of Stat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호 공존을 보장하는 최소주의적 질서로 이해한다.¹⁶⁾

이러한 이유로 다원주의는 인간안보, 인도적 개입, 보호책임(R2P)과 같은 규범에 대해 일정한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주권과 비개입 원칙을 침해할 경우 국제질서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원주의는 인간안보의 규범적 확산을 평가할 때 인권과 인간 보호라는 가치보다 주권 보장과 국제질서 유지에 더 큰 이론적 비중을 부여한다.

반면 연대주의는 국제사회를 단순한 주권국가들의 공존 체제를 넘어, 공동의 가치와 목표 실현을 위한 협력 공동체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연대주의의 핵심 전제는 국가가 여전히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인 역시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도덕적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정당성은 국가의 권리와 주권을 보장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기본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는 데서도 비롯된다.¹⁷⁾

이론적으로 연대주의는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으나, 영국학파에서는 주로 자유주의적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와 국제정의(international justice)의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연대주의는 국가 간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규범만을 강조하는 다원주의의 ‘얇은(thin)’ 국제사회 개념과 달리, 인권, 인간안보, 인도주의, 국제법적 책임과 같은 보다 포괄적 규범을 포함하는 ‘두터운(thick)’ 국제사회 개념을 지향한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는 단순히 국가 간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도덕적 가치와 책임을 구현하는 규범 공동체로 이해된다.¹⁸⁾

연대주의자들에게 국제연대는 국가 간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사회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경계를 넘어 책임을 공유해야 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나 인간적 고통에 대해서는 집단적 대응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의는 질서에 종속되는 부차적 가치가 아니라 국제질서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정의가 결여된 질서는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

16) Jorgensen, Knud Erik. 2018.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 New Introduction*. London: Palgrave. 119–121.

17) Buzan, Barry. 2014. *An Introduction to the English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Societal Approach*. Cambridge: Polity, 113–163; Linklater, Andrew, and Hidemi Suganami. 2006. *The English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Contemporary Reassess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 Jorgensen, Knud Erik. 2018.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 New Introduction*. London: Palgrave, 121–125; Bull, Hedley. 1977/1995.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Gong, Garrett. 1984.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Clarendon Press; Wheeler, Nicholas J. 2000. *Saving Strangers: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적으로도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연대주의적 시각은 인간안보, 인도적 개입, 보호책임(R2P)과 같은 규범이 국제사회 내부에서 확산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다원주의와 연대주의는 모두 국제사회의 기본 원리인 주권과 비개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하면서 국제사회가 어떠한 규범, 규칙, 제도를 수용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범위와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한다. 따라서 영국학과 맥락에서 다원주의와 연대주의를 단순히 대립적이거나 상호 배타적인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주권, 인권, 개입, 국제정의와 같은 쟁점을 둘러싸고 상이한 견해를 제시하며 대립적인 논쟁을 할 수 있으나, 두 입장은 국제사회의 상반된 가능성을 조명하는 상호보완적 분석틀로 이해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다원주의와 연대주의는 국제사회가 질서와 정의라는 두 규범적 목표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영국학파의 핵심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다원주의가 주권과 공존을 바탕으로 국제질서의 안정성을 강조한다면, 연대주의는 인권과 인간 보호를 중심으로 국제정의의 확대를 강조한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협상해야 하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원주의와 연대주의는 각각 국제사회를 국제체제와 세계사회에 연결하는 경계 개념으로 기능한다. 다원주의는 국제사회를 국가 중심의 국제체제에 가깝게 위치시키는 반면, 연대주의는 국제사회를 인간 중심의 세계사회로 확장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두 전통은 국제체제, 국제사회, 세계사회라는 영국학파의 세 가지 분석 차원을 매개하고 연결함으로써, 국제정치의 권력, 질서, 규범, 정의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특히 인간안보와 같은 새로운 국제규범의 등장과 제도화 과정은 바로 이러한 다원주의와 연대주의 사이의 긴장과 상호작용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¹⁹⁾

19) Buzan, Barry. 2014. *An Introduction to the English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Societal Approach*. Cambridge: Polity; Linklater, Andrew, and Hidemi Suganami. 2006. *The English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Contemporary Reassess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Ⅲ. 인간안보/트리플 넥서스에 대한 영국학파 분석틀

영국학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보편적 인권 가치와 국가주권 사이의 긴장 관계이다. 이 문제는 국제사회론의 다원주의와 연대주의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며, 특히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R2P)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실제로 인간안보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은 많은 국가들이 인간안보를 개인 보호라는 규범적 목표를 내세워 국가주권을 제약하거나 외부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해 왔음을 보여준다.²⁰⁾ 그 결과, 인간안보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합의된 규범이라기보다, 주권과 인권, 질서와 정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선택적으로 수용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온 규범으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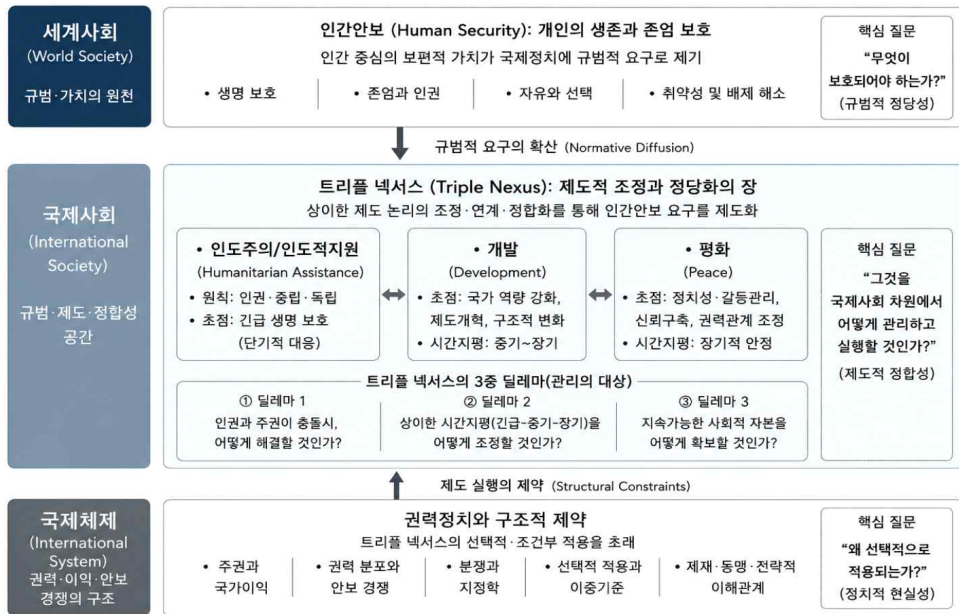
영국학파의 세 줄기 전통(국제체제, 국제사회, 세계사회)은 인간안보와 트리플 넥서스를 국제 정의의 규범적 변화와 국제 질서 재구성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인간안보는 국가 간 권력 경쟁과 안보 중심의 시각을 넘어, 인간 보호라는 가치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제도화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안보를 국가 간 권력 경쟁의 산물로만 보지 않고,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규범과 도덕적 원칙이 어떠한 행위와 책임을 정당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트리플 넥서스 논의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트리플 넥서스는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개발(development), 평화 구축(peacebuilding)이라는 개별 정책 영역을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정책 도구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국제사회가 주권, 인도주의, 개발 책임, 평화 구축이라는 서로 다른 규범과 제도적 원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하고 통합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제도적 메커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트리플 넥서스는 정책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가 질서 유지와 인간 보호라는 상충 가능한 규범적 요구를 어떠한 제도적 틀 속에서 조율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인간안보가 인간의 존엄, 인권, 인간개발과 같은 세계사회적 가치를 국제정치의 핵심 의제로 제시하였다면, 트리플 넥서스는 그러한 가치가 국제사회의 정책과 제도 속에서 구체화되는 제도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영국학파는 인간안보와 트리플 넥서스를 국제질서의 규범적 진화 과정 속에 위치시키고, 질서와 정의, 주권과 인권, 국제사

20) Wibben, Annick T. R. 2008. "Human Security: Toward an Opening." *Security Dialogue*, Vol.39, 455-462; Newman, Edward. 2010. "Critical Human Security Studi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36, no.1, 77-94.

회와 세계사회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학과는 인간안보와 트리플 넥서스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단순한 배경 이론이 아니라, 규범의 형성·확산·제도화 과정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이론적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 영국학과 시각을 적용한 인간안보-트리플 넥서스의 다층적 분석틀

위의 〈그림 1〉은 영국학과와 국제체제, 국제사회, 세계사회라는 삼중적 전통을 바탕으로 인간안보와 트리플 넥서스를 국제질서에서 작동하는 규범, 제도, 권력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이 분석틀에서 인간안보는 세계사회 차원에서 개인의 생명과 존엄 보호라는 규범적 요구를 제기하며, 트리플 넥서스는 이러한 요구가 국제사회 차원에서 인도주의/인도적지원-개발-평화라는 상이한 제도적 논리와 결합하고 조정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규범의 제도화는 국제체제의 권력관계, 주권, 안보 경쟁 및 분쟁이라는 현실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개인 보호 요구는 국제사회에서 일률적으로 구현되기보다 선택적이고 조건적인 방식으로 수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세계사회, 국제사회, 국제체제는 서로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안보 규범의 수용 범위와 트리플 넥서스의 제도적 형태를 구성하는 분석 차원이며,

영국학과 역시 두 개념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설명변수가 아니라 이들의 관계와 변화를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기능한다.

먼저 세계사회 차원에서 인간안보는 개인의 생존과 존엄 보호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국제정치에 새로운 규범적 요구를 제기한다. 이는 안보의 대상과 목적에 대한 근본적 재정의의 통해 “무엇이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국제정치의 중심 의제로 부각시킨다. 이러한 규범적 요구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비로소 제도적 의미를 획득한다. 국제사회는 연대주의에 기반해서 인간안보가 제기한 개인 보호의 요구를 주권,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 개발협력, 평화 구축과 같은 기존 제도와 규범 속에서 조정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트리플 넥서스는 인간안보의 규범적 요청을 정책과 제도 운영의 논리로 전환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라는 상이한 제도적 영역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안보는 규범적 요구를 제기하는 원천으로, 트리플 넥서스는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조정 메커니즘으로, 국제체제와 국제사회의 다원주의는 이러한 과정에 제약을 가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각각 위치한다. 인간안보와 트리플 넥서스는 서로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 세계사회적 가치가 국제사회 내부로 유입되고 제도화되는 연속적인 과정의 서로 다른 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 인간안보와 트리플 넥서스가 투영된 국제사회는 인권과 주권이, 정의와 질서가, 연대주의와 다원주의가 만나 타협을 시도하는 장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이러한 타협은 국제체제 차원의 정치적 현실과 분리될 수 없다. 국제체제는 국가 간 권력 관계, 안보 경쟁, 지정학적 이해관계, 분쟁 구조 등을 통해 인간안보와 트리플 넥서스의 적용 범위와 실행 강도를 제약한다. 그 결과 개인 보호라는 규범은 보편적이고 일률적으로 실현되기보다 정치·제도적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인간안보와 트리플 넥서스는 세계사회적 가치, 국제사회적 제도, 국제체제적 권력 구조가 상호작용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규범적·제도적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영국학파의 개념 체계 자체가 아니라, 세계사회적 가치가 국제사회의 규범과 제도로 수용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질서와 정의의 긴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안보를 개인의 생존과 존엄이라는 세계사회적 가치가 국제사회로 유입되는 규범적 변화로 파악하고, 트리플 넥서스를 그러한 요구가 인도주의/인도적지원-개발-평화라는 상이한 제도 영역에서 조정되는 과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동시에 이러한 제도화가 주권, 권력관계 및 분쟁이라는 국제체제의 조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다음 장의 분석은 인간안보와 트리플 넥서스를 각각 영국학파의 개념에 대응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념의 등장과 연결을 세계사

회적 규범의 형성, 국제사회적 조정, 국제체제적 제약이라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IV. 인간안보에서 트리플 넥서스로: 규범 확장과 제도 구현

1. 인식전환 기제로서의 인간안보 개념

1994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는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를 결합함으로써 안보 중심을 국가의 영토나 군사력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으로 전환하였다.²¹⁾ 이는 폭력과 군사적 위협 뿐 아니라, 빈곤, 실업, 질병, 재난과 같은 구조적 위협 역시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핵심 안보 문제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보 개념을 인간의 일상적 삶과 생존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구성하였다.²²⁾

이러한 인간안보 개념은 국가 중심의 전통안보가 개인이 경험하는 복합적 불안정과 취약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하였다. 인간안보는 전통안보가 주로 국가 간 전쟁과 군사적 위협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빈곤, 경제위기, 감염병, 기후변화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까지 안보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안보 대상과 범위를 국가에서 개인으로 확장하였다. 나아가 인간안보는 인간의 안전과 존엄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적 요구를 국제사회 차원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21) Newman, Edward. 2010. "Critical human security studi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36, no.1; Ewan, Pauline. 2007. "Deepening the human security debate: Beyond the politics of conceptual clarification," *Politics*, Vol.27, no.3; Koundouri, Phoebe et al., 2025. "Mapping human security strategi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machine learning approach," *Discover Sustainability*, Vol.6, no.1.

22) 1994년 UNDP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는 인간안보를 인간의 일상적인 삶과 안전감에 초점을 둔 광범위하고 인간 중심적인 개념으로 제시하며, 국가 안보와의 직접적 연계를 강조하지 않은 반면, 2003년 인간안보위원회(Commission on Human Security)의 『Human Security Now』는 인간안보를 국가안보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규정하고, 보호와 역량강화(empowerment)를 중심으로 보다 제도·정책화된 안보 프레임워크로 발전시킴. 즉, 1994년에 등장한 개념은 인간안보의 규범과 포괄적 비전을 강조한 반면, 2003년에 등장한 개념은 기존 안보 체계와 연결 가능한 정책 개념으로 체계화된 차이가 있음. Wibben, Annick TR. 2008. "Human security: Toward an opening," *Security Dialogue*, Vol. 39, no.4, 458; Fukuda-Parr, Sakiko and Carol Messineo. 2012. "Human Security: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Centre for Research on Peace and Development (CRPD) Working Paper No.11, 6-7; 이해정·박지범. 2013. "인간안보: 국제규범의 창안, 변형과 확산." 『국제·지역연구』 제22권 1호, 1-37.

다.²³⁾

물론 국제질서에서 평화와 인간 보호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현대 인간안보 논의 이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어 왔다. 근대 국제정치사상에서는 국가 간 갈등을 제도와 규범을 통해 통제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려는 논의가 발전하였으며, 특히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국가 간 법·제도적 질서를 통한 평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집단안보와 국제기구의 제도화로 이어졌고, 국제연합(United Nations) 성립 이후에는 국가 간 평화 뿐 아니라 인권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보호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규범적 의제로 확대되었다. 인간안보는 이러한 장기적 변화 속에서 안보와 평화의 준거를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생존과 존엄으로 확장한 현대적 규범 변화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영국학파에 의하면 인간안보 등장은 세계사회 차원의 가치와 요구가 국제정치 담론으로 유입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안보는 국가 중심 안보를 완전히 대체하는 개념이라기 보다 국제사회 내부에 세계사회적 가치가 투여되면서 인간보호가 국제질서의 정당한 규범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²⁴⁾ 그러나 영국학파가 강조하듯, 세계사회적 요구는 그 자체로 국제정치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국제기구, 국제법, 평화구축 체계와 같은 국제사회적 제도를 통해 매개되고 정당화될 때에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이러한 인간안보의 문제의식은 아마르티야 센(Amartya Sen)의 역량 접근법과 긴밀하게 연결된다.²⁵⁾ 센은 빈곤을 단순한 소득 부족이 아니라 인간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의 박탈로 이해하였다. 그의 관점에서 기아, 질병, 교육의 부재, 정치적 억압은 모두 개인의 선택 가능성과 행위 능력을 제약하는 불안정 형태로 인간의 안전과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인간안보는 센의 역량 접근을 정책·제도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인간의 생존을 넘어 존엄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경제·정치적

23) Owen, Taylor. 2004(a). "Are we really secur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defining and measuring Human Security", *Disarmament Forum* 3; Fukuda-Parr, Sakiko and Carol Messineo. 2012. "Human Security: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Centre for Research on Peace and Development (CRPD) Working Paper No.11; Alkire, Sabina. 2003. "A Conceptual Framework for Human Security", Centre for Research on Inequality, Human Security and Ethnicity (CRISE), Working Paper 2, 2-3.

24) Watson, Adam. 1987. "Hedley Bull, States Systems and International Societi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13, no.2.

25) Sen, Amarty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Fukuda-Parr, Sakiko and Carol Messineo. 2012. "Human Security: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Centre for Research on Peace and Development (CRPD) Working Paper No.11, 7.

조건의 보장을 안보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인간안보는 국가의 생존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안보관을 넘어, 인간의 역량과 존엄을 보호 대상으로 재정의한 규범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²⁶⁾ 이는 인간안보가 인권(human rights),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역량접근(capacity approach)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²⁷⁾

특히 인간안보 개념은 보호해야 할 권리와 역량을 포괄적으로 열거하기 보다는 핵심 영역 범위를 의도적으로 다소 모호하게 설정함으로써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²⁸⁾ 이는 인간안보의 실현 과정에서 참여적 논의와 가치 판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국제기구와 공공기관 등 제도적 행위자들이 구체적 상황과 대상 집단에 맞추어 인간안보를 실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개념적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영국학과 시각에서 인간안보는 단순히 새로운 안보 개념의 제시가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존엄이라는 세계사회적 요구가 국제사회 내부의 규범과 제도 속에서 어떠한 정당화 논리로 채택되고 적용되는지를 묻는 이론적 문제로 재구성된다. 인간안보를 둘러싼 논쟁은 곧 국제사회가 주권, 인권, 개발, 평화 구축이라는 상이한 규범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하고 통합하는가에 대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안보를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개인 보호라는 규범적 요구가 국가 주권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인간안보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은 개인 보호와 국가 주권 사이의 긴장이 국제사회에서 인간안보 개념 확산과 제도적 수용을 제한해 온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한다.²⁹⁾ 특히 인간안보가 외부 개입을 정당화하고 국가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다수의 국가들로 하여금 인간안보 개념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보호책임(R2P)은 인간안보와 주권 사이의 긴장을 조정하려는 국제사회적 규범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R2P가 주권을 절대적 권한이 아닌 국민 보호의 책임을 수반하는 조건적 개념으로 재구성하였다고 평가한다.³⁰⁾

26) Sen, Amarty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Sen, Amartya. 2000. "Why human security," *International Symposium on Human Security*, Tokyo Vol.28.

27) Fukuda-Parr, Sakiko and Carol Messineo. 2012. "Human Security: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Centre for Research on Peace and Development (CRPD) Working Paper No.11.

28) Owen, Taylor. 2004(b). "Human security-conflict, critique and consensus: Colloquium remarks and a proposal for a threshold-based definition," *Security Dialogue*, Vol.35, no.3.

29) Chandler, David. 2008. "Review essay: Human security: the dog that didn't bark," *Security Dialogue*, Vol.39, no.4.

30) Chandler, David. 2008. "Review essay: Human security: the dog that didn't bark," *Security Dialogue*, Vol.39, no.4; Fukuda-Parr, Sakiko and Carol Messineo. 2012. "Human Security: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Centre for Research on Peace and Development (CRPD) Working Paper No.11;

즉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의지나 능력을 상실하거나 오히려 대규모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할 정당성이 발생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관점은 2001년 ‘개입과 국가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의 보고서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를 통해 체계화 되었다. 이 보고서는 기존의 개입할 권리(right to intervene) 담론을 보호할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제사회 개입의 정당성을 주권 침해가 아니라 인간 보호 책임의 이행이라는 규범적 틀 속에서 재정의 하였으며, 이후 인간안보 논의를 국제정치와 국제법 영역에서 제도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였다.³¹⁾

또한 R2P는 단순히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원칙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prevention), 대응(response), 재건(rebuilding)을 포괄하는 연속적 접근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논리는 개인 보호를 단기적 위기 대응이 아닌 장기적 구조 개선의 문제로 확장함으로써, 인간안보의 핵심 논리와 구조적 유사성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R2P는 인간안보와 국제사회 질서 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평가될 수 있으며, 트리플 넥서스와의 구조적 유사성을 갖는다. 물론 R2P와 트리플 넥서스는 적용 영역과 제도적 원칙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보호 책임을 단절된 개입이 아닌 연속적이며 통합적인 책임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이론적 토대를 공유하고 있다.

2. 인간안보 실행기제로서의 트리플 넥서스(Triple Nexus)

인간안보의 한계, 특히 개념과 실천 간의 간극은 인간안보를 실제 정책과 제도로 구현할 수 있는 실행 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기존 국제개발 및 인도적 개입 체계에서는 긴급구호, 중장기 개발, 분쟁 예방 및 평화 구축이 서로 다른 제도와 행위자에 의해 분절적으로 수행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위기 상황에서 단기적 생존을 지원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빈곤과 취약성, 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트리플 넥서스는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구축을 상호 분절된 개입 영역이 아니라, 위기 상황 전반에 걸쳐 연속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정책 영역으로 이해하는 접근으로 위기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장기적 회복을 동시에 추구한다.³²⁾

이혜정·박지범, 2013. “인간안보: 국제규범의 창안, 변형과 확산.” 『국제·지역연구』 제22권 1호, 1-37.

31) ICISS, 2001.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박홍서, 2012. “자유주의 통치성의 출현과 인간안보: 인간안보에 대한 푸코주의적 접근”, 『국제정치논총』 제52집 3호, 72-73; 조정현, 2023. “보호책임(R2P)의 이론과 실행-미얀마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대응을 포함하여”, 『외법논집』 제47권 2호, 129-131.

앞서 본 연구 제3장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트리플 넥서스는 인간안보와 분리된 새로운 정책 담론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인간안보가 개인의 생명과 존엄을 국제정치의 보호대상으로 확장함으로써 세계사회적 차원의 규범적 요구를 제기하였다면, 트리플 넥서스는 이러한 요구를 인도적지원-개발-평화라는 국제사회의 상이한 제도 영역에서 조정하고 구체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안보에서 트리플 넥서스로의 전개는 규범적 의제에서 정책적 의제로의 단순한 전환이라기보다, 개인보호라는 가치가 기존 국제사회의 제도적 구조 속에서 수용되고 조정되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UNDP는 트리플 넥서스를 위기와 분쟁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위기의 근본 원인과 취약성을 함께 해결하려는 접근으로 정의한다.³³⁾ 특히 트리플 넥서스는 장기화 된 위기와 분쟁 맥락에서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활동을 분절적으로 추진해 온 기존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들 세 영역 간의 조정(coordination), 협력(collaboration), 그리고 정책 정합성(coherence) 강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한다. 이 접근은 인도적 지원이 개발과 평화의 기반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개발이 분쟁 민감성을 반영하며, 평화구축이 사회경제적 회복과 생계 안정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³⁴⁾ UNDP는 트리플 넥서스의 실현을 위해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복잡한 조정 과정의 관리, 재원과 투자에 대한 장기 계획 수립,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위험 완화와 역량 강화, 리더십과 책무성 확보를 주요 요소로 제시한다.

트리플 넥서스에 대한 관심은 단일한 정책 혁신의 결과라기 보다,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에서 전개되어 온 여러 논의 흐름이 점진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³⁵⁾ 2016년 세계인도주의 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는 이러한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계기로 이 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업무 방식(New Way of Working)’은

32) 트리플 넥서스의 역사적 형성 과정은 Baroncelli, Eugenia. 2024. “Governing Complexity in Complex Times: The HDP Nexus and the role of the UN, the EU and the World Bank,” *The International Spectator*, Vol.59, no.3를 참고 바람.

33) Howe, Paul. 2019. “The triple nexus: A potential approach to supporting th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orld Development* 124; Volkdal, Christina Plesner. 2025. “The Triple Nexus Framework and its Operationalization across UN-Agencies,” Centre for Business and Development Studies Policy Brief No. 1 March.

34) Brown, Summer, Rodrigo Mena and Sylvia Brown. 2024. “The peace dilemma in the triple nexu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approach.” *Development in Practice*, Vol.34, no.5, 568-584; 김효정·이진영·김영완. 2021. “분쟁과 자연재해 상황에서 HDP Nexus 이행 방안 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3권 1호, 99-114.

35) Howe, Paul. 2019. “The triple nexus: A potential approach to supporting th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orld Development* 124.

다양한 행위자들이 단기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협력하며 공동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³⁶⁾ 이어서 공여국과 인도주의 기관들은 인도적 행위자와 개발 행위자 간의 보다 긴밀한 참여와 협력을 촉구하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에 합의함으로써 분절된 대응 방식의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트리플 넥서스는 인간안보의 실천적 구현 메커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간안보가 인간의 생존, 생계, 존엄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적 목표를 제시하였다면, 트리플 넥서스는 이를 정책과 제도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행 논리를 제공한다. 인도적 지원은 긴급한 생존을 보호하고, 개발은 지속 가능한 생계를 구축하며, 평화 구축은 폭력과 불안정의 재발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안전과 존엄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³⁷⁾ 따라서 트리플 넥서스는 단순한 정책 조정 수단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복합위기와 구조적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시켜 온 제도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인간 보호라는 규범적 가치가 국제사회의 정책과 제도 속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규범의 진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트리플 넥서스는 인간안보가 직면한 우선순위 설정과 제도화 문제에 대한 실천적 해법을 제시한다. 인간안보의 핵심 영역을 상황별로 구체화하고, 제한된 제도적 역량 속에서 이를 단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 간 조정과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다. 트리플 넥서스는 국제기구, 공공기관,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권한을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안보를 추상적 개념이 아닌 실행 가능한 정책 기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트리플 넥서스는 개념적으로는 통합적 접근을 제시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제도와 정치적 한계를 보인다. 특히 인도적 지원의 중립성(neutrality)과 개발·평화 구축의 정치적 성격 사이의 긴장은 트리플 넥서스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핵심 문제이다.³⁸⁾ 인도주의적 행위자들이 개발이나 평화구축 목표와 과도하게 연계될 경우, 현지 주민과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중립적 행위자로 인식되지 못함에 따라 접근성과 신뢰성이 약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판은 인도적 개입이 때로는 외부의 정치·규범적 질서를 현지 사회에 투영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식민주의 형태를 재현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과도 연결된다.³⁹⁾ 또한 각 개입 영역이 상이한 자원 구조와 성과 평가 기준을 가지고

36)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Initiative: New way of Working 2018.

37) Nguya, Gloria and Siddiqui, Nadia. 2020. "The Triple Nexus (HDP) and implications for durable solutions to internal displacement," The Internal Displacement Research Programme.

38) Baroncelli, Eugenia. 2024. "Governing Complexity in Complex Times: The HDP Nexus and the role of the UN, the EU and the World Bank," *The International Spectator*, Vol.59, no.3, 21-41.

있다는 점 역시 넥서스 실천을 어렵게 만든다. 단기적 성과를 요구하는 인도적 지원과 장기적 변화를 전제로 하는 개발과 평화 구축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정책 조정의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인간안보의 실행기제로서 트리플 넥서스를 적용할 때에도 인간안보가 지닌 규범적 모호성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⁴⁰⁾ 즉 보호해야 할 핵심 영역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을 경우, 넥서스 접근 역시 포괄적 담론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인간안보의 핵심 요소를 상황별로 구체화하고, 개입의 우선순위를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인간안보와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개념 역시 국가보다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보건, 교육, 인권, 성평등, 환경과 같은 인간 중심 지표를 강조하지만, 일부 비판적 연구들은 이러한 개념이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적(neoliberal) 발전 모델과 글로벌 거버넌스 질서를 확산시키는 담론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고 지적한다.⁴¹⁾ 트리플 넥서스가 인간안보의 실질적 실행기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맥락 기반 분석을 통해 인간안보 핵심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위자 간 역할 분담과 책임 구조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영국학과 시각에서 볼 때, 트리플 넥서스는 흔히 이해되듯이 현장에서의 기술적 협업 모델이나 정책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국제사회 내부에서 서로 다른 규범과 제도를 지닌 영역들이 충돌하고, 경합하는 상황 속에서 그 관계를 조정하고 관리하려는 제도적 메커니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주의 영역은 중립성, 독립성을 강조하는 반면, 개발은 국가 역량강화와 제도 개혁을 중시하며, 평화 구축은 본질적으로 정치 과정과 갈등 관리에 깊이 관여한다. 이처럼 상이한 논리와 규범을 지닌 세 영역이 동일한 위기 공간에서 동시에 작동할 경우, 국제사회는 빈번하게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트리플 넥서스는 이러한 위기를 제거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제도

39) Singh, Priya and Banergee, Paula. 2024. "Humanitarianism, development and peace: a southern perspective." in Silke Roth et al. *Handbook on Humanitarianism and Inequality*, Edward Elgar Publishing, 63-76.

40) Baroncelli, Eugenia. 2024. "Governing Complexity in Complex Times: The HDP Nexus and the role of the UN, the EU and the World Bank," *The International Spectator*, Vol.59, no.3, 21-41; Volkdal, Christina Plesner. 2025. "The Triple Nexus Framework and its Operationalization across UN-Agencies," Centre for Business and Development Studies Policy Brief No. 1 March.

41) Baroncelli, Eugenia. 2024. "Governing Complexity in Complex Times: The HDP Nexus and the role of the UN, the EU and the World Bank," *The International Spectator*, Vol.59, no.3, 21-41; Singh, Priya and Banergee, Paula. 2024. "Humanitarianism, development and peace: a southern perspective." in Silke Roth et al. *Handbook on Humanitarianism and Inequality* Edward Elgar Publishing, 63-76.

논리가 충돌하는 현실을 전제로 하여 그 충돌을 완화하고 조정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점에서 트리플 넥서스는 국제사회가 규범적 불일치를 관리하는 하나의 장치라 할 수 있다.

또한 트리플 넥서스는 인간안보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권과 인권 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실천적 프레이밍으로 기능한다. 영국학과 논의에서 주권과 개인 보호 간의 긴장은 인도적 개입 뿐 아니라, 개발과 평화 구축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리플 넥서스는 개입이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 위험, 취약성, 역량, 조정, 책무성과 같은 언어를 통해 국제사회의 개입을 재정당화 한다. 이는 외부행위의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사회의 역할을 관리와 지원 차원에서 설명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영국학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접근은 국제질서 유지와 개인 보호 사이의 균형을 새롭게 조정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트리플 넥서스는 어느 한쪽을 우선시하기 보다 국제사회가 기존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규범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조정 공간을 마련하려는 실천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트리플 넥서스는 인간안보 논의와의 연속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인간안보가 국제정치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초점을 맞춘 규범적 질문을 확장했다면, 트리플 넥서스는 그러한 규범적 요구를 어떻게 함께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운영 논리를 제시한다. 이 점에서 트리플 넥서스는 세계사회 차원의 개인 보호 요구를 국제사회 차원의 제도와 정책으로 번역하는 또 하나의 매개 메커니즘으로 적용할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영국학파의 관점에서 인간안보와 트리플 넥서스의 관계를 재해석하였다. 인간안보는 개인보호라는 가치와 국제사회로 확산되는 규범적 진화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트리플 넥서스는 이러한 규범적 요구가 인도주의/인도적지원-개발-평화의 영역에서 조정되고 제도화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하였다. 기존 연구가 인간안보를 규범적 대안이나 정책 프레임으로, 트리플 넥서스를 인도주의/인도적지원-개발-평화 영역 간의 협력 모델로 주로 설명해 왔다면, 본 연구는 이들 개념이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어떠한 규범적 의미와 제도적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영국학파의 삼중구조는 인간안보의 규범적 발전을 다층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한

다. 세계사회 차원에서 제기된 개인보호 요구는 국제사회 규범과 제도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조정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트리플 넥서스를 이러한 과정의 한 형태로 해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리플 넥서스는 인간안보의 보호 요구가 인도적지원-개발-평화의 세 영역과 연계되는 제도적 조정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 확장과 제도화는 국제체제 차원의 주권, 권력정치, 안보 경쟁,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인간안보와 트리플 넥서스는 단순한 정책 수단이나 규범적 이상이 아니라, 질서와 정의, 주권과 인권, 다원주의와 연대주의 사이의 긴장 속에서 형성되는 국제사회의 규범적 산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인간안보와 트리플 넥서스를 각각 독립된 규범과 정책 담론으로 다루기보다, 개인 보호라는 규범적 요구가 국제사회에서 수용되고 제도화되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재구성한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안보는 국가안보를 대체하는 규범이라기 보다 국제사회가 개인의 생명과 존엄에 대한 보호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해 온 규범적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트리플 넥서스는 이러한 요구가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영역과 연계되는 제도적 조정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주권과 질서, 권력관계 등 국제체제의 현실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인간안보와 트리플 넥서스의 전개는 새로운 가치가 기존 국제질서를 대체하는 과정이라기보다, 국제사회가 기존 질서를 유지하면서 인간보호라는 정의 요구를 선택적이며 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관리된 규범 진화(managed normative evolution)’로 이해할 수 있다.⁴²⁾ 이는 영국학파의 다층적 관점을 인간안보와 트리플 넥서스 관계에 적용함으로써 국제질서의 변화 과정에서 규범, 제도, 권력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한다는 이론적 의미 또한 갖는다.

이러한 논의는 트리플 넥서스의 실천이 인도주의/인도적지원-개발-평화 활동의 단순한 통합이나 협력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도주의의 중립성과 개발의 국가·제도 중심적 접근, 평화구축의 정치성은 상호 충돌할 수 있으므로, 세 영역을 획일적으로 결합하기 보다 각 영역의 고유 원칙을 유지하면서 위기와 분쟁의 맥락에 적합한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간안보가 국가 주권과 안보 논리에 의해 주변화 되거나, 반대로 정치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개인보호의 규범적 정당성과 제도적 책무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트리플 넥서스의 실효성

42) 이에 대한 사례연구로 김효정·손혁상. 2025. “다원적 국제개발협력 규범의 ‘공진화’: 공존과 경쟁의 개발 거버넌스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65집 2호, 백범석. 2025. “인권 기반 기후소송의 규범적 진화: 국제사법재판소(ICJ) 2025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함의”, 『환경법과 정책』 제33집 3호 논문을 참고 바람.

은 제도간 연계의 정도뿐 아니라, 어떠한 원칙과 조건 아래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효정·손혁상. 2025. “다원적 국제개발협력 규범의 ‘공진화’: 공존과 경쟁의 개발 거버넌스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65집 2호.
- 김효정·이진영·김영완. 2021. “분쟁과 자연재해 상황에서 HDP Nexus 이행 방안 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3권 1호.
- 마상윤. 2008.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 『세계정치』, 제10권.
- 박홍서. 2012. “자유주의 통치성의 출현과 인간안보: 인간안보에 대한 푸코주의적 접근”, 『국제정치논총』, 제52집 3호.
- 백범석. 2025. “인권 기반 기후소송의 규범적 진화: 국제사법재판소(ICJ) 2025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함의”, 『환경법과 정책』, 제33집 3호.
- 이유철. 2021. “주류국제정치이론이 지닌 ‘서구 중심성’에 대한 대안적 인식론 논의: 국제사회론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4권 2호.
- 이혜정·박지범. 2013. “인간안보: 국제규범의 창안, 변형과 확산”, 『국제·지역연구』 제22권 1호.
- 조정현. 2023. “보호책임(R2P)의 이론과 실행-미얀마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대응을 포함하여-”, 『외법논집』, 제47권 2호.
- 황영주. 2009. “실증주의와 후기실증주의의 중도(via media)?: 영국학과 다시보기”, 『국제정치연구』, 제12권 2호.
- Acharya, Amitav. 2011. “Human Security.” in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eds. John Baylis, Steve Smith and Patricia Owe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lkire, Sabina. 2003. “A Conceptual Framework for Human Security.” Centre for Research on Inequality, Human Security and Ethnicity (CRISE) Working Paper 2.
- Baroncelli, Eugenia. 2024. “Governing Complex in Complex Times: The HDP Nexus and the role of the UN, the EU and the World Bank.” *The International Spectator* Vol.59, no.3.
- Bellamy, Alex J. 2007. “The English School.”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ed. Martin Griffiths. London: Routledge.
- Brown, Chris. 2001. “World Society and the English School: An International Society Perspective on World Societ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7, no.4.
- Brown, Summer, Rodrigo Mena and Sylvia Brown. 2024. “The peace dilemma in the triple nexu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approach.” *Development in Practice*, Vol.34, no.5.
- Bull, Hedley. 1977/1995.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Buzan, Barry. 1993. “From international system to international society: Structural realism and

- regime theory meet the English School.”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7, no.3.
- _____. 2014. *An Introduction to the English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Societal Approach*. Cambridge: Polity.
- Buzan, Barry and George Lawson. 2018. “The English School: History and primary institutions as empirical IR theory?” in Thomson, V. (ed.) *The Oxford Encyclopedia of Empirical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USA.
- Chandler, David. 2008. “Review essay: Human security: the dog that didn’t bark.” *Security Dialogue*, Vol.39, no.4.
- Dunne, Tim. 2013. “The English School.”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Discipline and Diversity*, eds. Time Dunne, Milja Kurki and Steve Smi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wan, Pauline. 2007. “Deepening the human security debate: Beyond the politics of conceptual clarification.” *Politics* Vol.27, no.3.
- Fukuda-Parr, Sakiko and Carol Messineo. 2012. “Human Security: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Centre for Research on Peace and Development (CRPD) Working Paper No. 11.
- Gong, Garrett. 1984.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Clarendon Press.
- Holliday, Ian and Brendan Howe. 2011. “Human Security: A Global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Provid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23, no.1.
- Howe, Paul. 2019. “The triple nexus: A potential approach to supporting th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orld Development* 124.
- ICISS, 2001.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 Jackson, Robert. 2000. *The Global Covenant: Human Conduct in a World of Stat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orgensen, Knud Erik. 2018.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 New Introduction*. London: Palgrave.
- King, Gary, and Christopher J. L. Murray. 2001~2002. “Rethinking Human Securit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116, no.4.
- Koudouri, Phoebe et al. 2025. “Mapping human security strategi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machine learning approach.” *Discover Sustainability*, Vol.6, no.1.
- Linklater, Andrew, and Hidemi Suganami. 2006. *The English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Contemporary Reassess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ttle, Richard. 1998. “International system, international society and world society: a re-evaluation of the English School.”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dited by B. A. Roberson, London·New York: Continuum.
- Maclean, Sandra J., David R. Black, and Timothy M. Shaw, eds. 2006. *A Decade of Human Security: Global Governance and New Multilateralisms*. Burlington: Ashgate.
- Newman, Edward. 2010. “Critical human security studi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36,

no.1.

- Nguya, Gloria and Nadia Siddiqui. 2020. "The Triple Nexus (HDP) and Implications for durable solutions to internal displacement." The Internal Displacement Research Programme.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Initiative: New Way of Working 2018.
- Owen, Taylor. 2004(a). "Are we really secur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defining and measuring Human Security." *Disarmament Forum* 3.
- _____. 2004(b). "Human security-conflict, critique and consensus: Colloquium remarks and a proposal for a threshold-based definition." *Security Dialogue* Vol.35, no.3.
- Paris, Roland. 2001. "Human Security: Paradigm Shift or Hot Air?" *International Security*, Vol.26, no.2.
- Quirk, Joel Forbes. 2006. "The Anti-Slavery Project: Linking th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Human Rights Quarterly*, Vol.28, no.3.
- Sen, Amarty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Why human security." International Symposium on Human Security, Tokyo Vol.28.
- Singh, Priya and Paula Banerjee. 2024. "Humanitarianism, development and peace: a southern perspective." in Silke Roth et al. *Handbook on humanitarianism and inequality*. Edward Elgar Publishing.
- Sørensen, George et al. 2022.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nd approaches*. Oxford university press.
- Volkdal, Christina Plesner. 2025. "The Triple Nexus Framework and its Operationalization across UN-Agencies." Centre for Business and Development Studies Policy Brief No.1 March.
- Watson, Adam. 1987. "Hedley Bull, States Systems and International Societi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13, no.2.
- Wheeler, Nicholas J. 2000. *Saving Strangers: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heeler, Nicholas J. and Timothy Dunne. 1996. "Hedley Bull's Pluralism of the Intellect and Solidarism of the Will." *International Affairs*, Vol.72, no.1.
- Wibben, Annick T.R. 2008. "Human security: Toward an opening." *Security Dialogue*, Vol.39, no.4.
- Wight, Martin. 1991. *International Theory: The Three Traditions*. Edited by Martin Wight and Brian Porter. Leicester: Leicester University Press.

【 Abstract 】

Human Security and the Triple Nexus
: A Preliminary Exploration from the English School Perspective

Cho, Youngchul · Lee, Jinyoung

This paper reinterprets human security and the triple nexus through the theoretical lens of the English School. While existing studies have largely approached human security as a normative alternative to national security or as a policy framework, this paper examines its normative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the English School's three domains of international system, international society, and world society. Human security is understood as a normative demand emerging from world society that emphasizes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life and dignity. The triple nexus is interpreted as a form of institutional coordination through which such demands are linked to humanitarian assistance, development, and peace. These processes, however, remain constrained by the realitie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including sovereignty and power politics. This study therefore conceptualizes the development of human security and the triple nexus as a process of managed normative evolution, through which international society accommodates emerging norms of human protection from world society while negotiating tensions between order and justice. In doing so, it offer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normative change in international order.

Key Words : International Norm, English School, Responsibility to Protect, Human Security, Triple Nexus

• 논문투고일 : 2026년 6월 29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6년 8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8월 18일